

철종대왕어진 복원에 대한 소고 (哲宗大王御眞 復元에 對한 小考)

李 康 七

<文化財 專門委員>

目	次
1. 朝鮮王朝의 御眞과 影殿	(ㄱ) 補
2. 軍服의 淵源	(ㄴ) 廣帶
3. 御眞復元の 實相	(ㄷ) 戰帶
가. 戰 笠	(ㄹ) 藤鞭
(ㄱ) 鎧子	(ㄷ) 靴子
(ㄴ) 鈎纓자와 貝纓	(ㄹ) 交倚
나. 龍顏	(ㄷ) 龍紋席
다. 軍服	마. 奉審과 考證
라. 戰服	4. 맺 는 말

머 리 말

지난 6월초(月初) 5日 한국전통미술인회회장(韓國傳統美術人會會長) 최광수(崔光守) 박사(博士)는 조선(朝鮮) 第25代 철종대왕(哲宗大王)(1831~1863)의 어진(御眞)을 그의 육필(肉筆)로 원본기법(元本記法)을 살려 복원모사(復元模寫) 기증(寄贈)함으로써 6.25당시(當時) 입은 상흔(傷痕)을 일부(一部)나마 복원(復元)하여 학계(學界)를 비롯 관계인사(關係人士)들의 두터운 관심(關心)을 자아내게 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의 초상예술(肖像藝術)은 유원(悠遠)한 역사(歷史)속에서 그 독특(獨特)한 위치(位置)에 있음은 사서(史書)나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을 통(通)해 보더라도 너무나 자명(自明)한 사실(事實)이다. 이는 이미 고구려(高句麗)의 고분벽화(古墳壁畫)에서 여러 모양(模樣)의 화상(畫像)¹⁾이 보일뿐만 아니라 「당서(唐書)」 고려키중(高麗伎中)에 「화국도형(畫國圖形)²⁾」이라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이미 국왕(國王)의 화상(畫像)이 이루어진 듯 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으로는 백제(百濟) 위덕왕(威德王)(554~598)의 태자(太子) 아좌(阿佐)가 도일(渡日)하여 그린 일본(日本)의 성덕태자상(聖德太子像)의 예

1) 金元龍著 「韓國壁畫古墳」, 「一志社刊 1980」 梅山里四神塚 北壁墓主 内外圖, 德興里古墳 前室 北壁墓主圖, 冬壽墓西側室 冬壽内外左像等 人物圖가 보인다.

2) 拙編 「韓國人肖像大鑑」(探究堂刊 1972) 韓國肖像藝術史概觀條.

(例)를 들 수 있으며³⁾, 또한 솔거(率去)가 꿈에 단군(檀君)을 보고 그 진(眞)을 그려 집집마다 봉안(奉安)케하였다는 설화(說話)는 즉 군주(君主)의 초상(肖像)이 존재(存在)하였다는 것을 예측(豫測)케 하여준다. 또한 신라(新羅)의 신문왕(神文王)2년(682) 2월에는 전채서(典彩署)⁴⁾가 설치(設置)되었을뿐 아니라 쌍계사진감론사비문(雙溪寺眞鑑禪師碑文)에는 「육조영(六祖影)」이라 보이고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궁예조(弓裔條)에는 “부석사벽화신라왕상(浮石寺壁畫新羅王像)⁵⁾”이라하여 금석문(金石文)이나 문헌상(文獻上)으로 초상제작(肖像製作)이 이미 불가(佛家)나 왕실(王室)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게하며, 따라서 이시대(時代) 후기(後期)의 학자(學者)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의 초상(肖像)이 현금(現今)도 전(傳)하고 있으므로 미루어 볼 때 초상예술(肖像藝術)은 매우 유구(悠久)한 역사(歷史)를 간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후 고려태조(高麗太祖)도 동왕(同王)23년(940) 신흥사(新興寺)에 공신당(功臣堂)을 설치(設置)하여 동서벽(東西壁)에 삼국공신(三國功臣)을 그려 일주야(一晝夜)의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설(設)하였고⁶⁾, 또한 봉진사(奉進寺) 등(等)에도 태조(太祖)의 영정(影幀)과 동서벽(東西壁)에 공신(功臣)과 장군상(將軍像)을 그렸다⁷⁾하니 이는 한곳뿐 아니라 광범(廣範)하게 그 공(功)을 파급(波及)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制度)는 왕(王)이나 공신(功臣)에 국한(局限)되지 않고 왕후(王后)의 초상(肖像)도 도사(圖寫)되어 왕(王)과 더불어 봉안(奉安)되었으며⁸⁾, 이는 충렬왕(忠烈王)23년(1297) 5월에 제국공주(齊國公主)(충렬왕비(忠烈王妃):1259~1297)가 죽자 그 해 8월 원(元)나라에서 그의 초상(肖像)을 그려보낸 사실(事實)로 비추어 보아 알 수 있다.⁹⁾ 또한 공민왕(恭愍王)(1330~1374)은 그의 비(妃)(노국공주(魯國公主)?~1365)가 동왕(同王)14년(1365) 2월에 죽자 그의 영정(影幀)을 스스로 그려 왕륜사동남(王輪寺東南)에 영전(影殿)을 건립(建立)하였는바 때에 그 역사(役事)로 인(因)해 백성(百姓)의 피해(被害)는 실(實)로 다대(多大)하였음은 물론(勿論) 막대(莫大)한 국고손실(國庫損失)마저 자아내게 하였던 것이다.¹⁰⁾

이상(以上)과 같이 나대(羅代)에 이러 여조(麗朝)에서는 왕(王)의 어진(御眞)이나 후상(后像) 그리고 공신도상(功臣圖像)에 이르기까지 궁성(宮城)보다는 주(主)로 사찰(寺刹)에 안치(安置)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조선조(朝鮮朝)에서도 전조(前朝)의 제도(制度)를 그대로 승습(承襲)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나 이에 대(對)해서는 다음 어진실태(御眞實態)에서 약술(略述)하겠거니와 다만 본고(本稿)는 이번 철종어진(哲宗御眞) 복원(復元)에 즈음하여 본업무(本業務)를 시종관여(始終關與)한 까닭으로 그 경위(經緯)를 소상(昭詳)히 밝히고 또한 이를 정리(整理)하고자 하는 미충(微衷)에서 감(敢)히 시도(試圖)하였음을 머리에 밝히는 바이다.

3) 「韓國人名大辭典」(新丘文化社刊 1967) 阿佐太子條

4) 「三國史記」神文王2年 6月條에 의하면 “置彩典監一人”이라 보인다.

5) 趙炳舜編 「增修補註 三國史記」卷第50 列傳第一 弓裔條

6) 譯註 「高麗史」卷2 世家卷2 太祖23年條 “是歲重修新興寺置功臣堂畫三韓功臣於東西壁設無遮大會一晝夜歲以爲常”라 보인다.

7) 「東國輿地勝覽」卷52永柔縣條 “高麗太祖影殿 在米豆山鳳進寺之南中安太祖影幀東西壁畫三十七功臣十二將軍像”이라 보인다.

8) 譯註 「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2 “癸巳奉安明懿太后眞于開國寺肅宗眞殿”이라 보인다.

9) 前 偈 忠烈王4 “癸卯公主眞元 百官以伎樂仰于郊”라 보인다.

10) 前 偈 恭愍王4 同王15年(丙午)5月 癸巳條

前 偈 恭愍王4 同王16年(丁未)4月 丙寅條

前 偈 恭愍王4 同王17年(戊申)6月 辛丑條

前 偈 恭愍王4 同王21年(壬子)8月 甲午條에 「影殿驚頭成其飾黃金650兩, 白銀800兩」이라 보인다.

1.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어진(御眞)과 영전(影殿)

여대(麗代)에 이어 이태조(李太祖)(1392~1398, 재위(在位))가 조선왕조(朝鮮王朝)를 개창(開創)하면서 우선(于先) 동왕(同王)4년(1395) 7월 13일 궁궐(宮闕) 서(西)쪽에 장생전(長生殿)을 세우게 하였으니 이는 공신(功臣)의 초상(肖像)을 드리우게 하려함이였다.¹¹⁾ 또한 동왕(同王)7년(1398) 12월 25일에는 신의왕후(神懿王后)(1337~1391)의 진영(眞影)을 인소전(仁昭殿)에 봉안(奉安)하고 스스로 제사(祭祀)를 거행(舉行)하기도 하였다.¹²⁾ 한편 태조(太祖)는 조선 건국(朝鮮建國)의 영주(英主)이며 그의 전신(傳神)을 만대(萬代)에 계승(繼承)한다는 뜻에서 개성(開城)의 목청전(穆淸殿)¹³⁾을 비롯하여 서경(西京)(평양(平壤))의 영숭전(永崇殿)¹⁴⁾ 그가 출생(出生)한 영흥(永興)의 선원전(璿源殿),¹⁵⁾ 그리고 그의 본관(本貫)인 전주(全州)의 경기전(慶其殿),¹⁶⁾ 또한 동경(東京)(경주(慶州))의 집경전(集慶殿)¹⁷⁾에 이르기까지 각각(各各) 진전(眞殿)을 건립(建立)하여 봉안(奉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¹⁸⁾ 그의 진영(眞影)은 「진영반영마좌지영여차즉다지이십여(眞影半影馬坐之影如此則多至二十餘)」라 한 바와 같이 동일(同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전신상(全身像)을 비롯하여 반신상(半身像), 그리고 말을 타고 앉은 마좌상(馬坐像) 등(等)이 있는가 하면 「태조영정유이십육축이유시중시사진(太祖影幀有二十六軸而有侍中時寫眞)」이라 한 바와 같이 또 시중(侍中)때에 것도 봉안(奉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성종대왕(成宗大王)(1470~1495)도 9축(軸)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¹⁹⁾ 역대왕(歷代王)의 어진(御眞)은 여러 모양으로 도사(圖寫)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어진(御眞)은 모두 재세시(在世時) 도사(圖寫)하는 것이 원칙(原則)이겠으나 꼭 그렇게 시행(施行)된 것만도 아닌상 싶다. 즉(卽) 태종(太宗)을 위시(爲始)한 세종(世宗), 세조(世祖) 그리고 덕종(德宗), 성종(成宗), 중종(中宗)은 모두 승하(昇遐)한 후(後)에 추사(追寫)한 것으로 보인다.²⁰⁾

11) 「太祖康獻大王實錄」卷8 同王4年 乙亥7月 13日(甲辰)條

12) 前 僞 卷15 同王7年戊寅12月 25日 (丁卯)條 神懿王后는 李太祖의 正妃로서 姓은 韓氏 安川府院君 卿의 딸이다. 그는 定宗, 太宗, 芳兩, 芳毅, 芳幹, 芳衍等 6男과 慶愼, 慶善의 두 公主를 두었다. 太祖即位年에 節妃의 諡號를 받고 仁昭殿을 魂殿으로 삼았으며 後에 文昭殿이라 하였다. 또한 太宗의 原廟를 廣孝殿이라 하였으며 世宗 15(1433)年에 이르러 景福宮延春門內에 새로히 文昭殿을 세우고 舊文昭殿과 廣孝殿의 位牌를 移安했다.

13) 「增補文獻備考」第59 「影幀」條 開城府 崇仁門안 太祖의 舊宅址에 太宗때 創建하여 宣祖25年(1592) 壬亂때 燒失되었으며 孝宗때는 담을 쌓고 下馬碑를 세웠다가 肅宗19年(1693)에는 御筆殿碑를 세운후 高宗 光武4年(1900)에는 本殿을 重建하고 새로이 太祖의 御眞을 奉安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늘의 平壤監營이 바로 그터이다」 하였다.

14) 前 僞 「旧影幀」條에 의하면 「平壤城안에 있는데 이는 高麗때 長樂宮단이고 國初에 創建하여 太祖의 御眞을 奉安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늘의 平壤監營이 바로 그 터이다」 하였다.

15) 咸鏡道永興郡順寧面黑石里 桓祖의 옛집이고 太祖가 誕生한 터이다. 太祖5年(1396)(丙子)에 創建하였고, 同王7年(戊寅)2月에 藝文官春秋館大學士 成石□(1338~1423)을 보내 太祖의 御眞을 奉安하였다.

16) 太宗10年(1410) 創建하여 御眞을 奉安하였고, 宣祖25年(1592) 壬辰倭亂이 勃發하자 參奉吳希吉이 井邑 內藏山 隱寂巷으로 疏開移奉하였다가 다시 牙山을 거쳐 江華府로 移安하였다. 그후 宣祖30年(1597) 다시 妙香山 普賢寺別殿으로 移安하였으며, 光海6年(1914) 慶其殿을 重建하고 承旨李好義와 禮曹參議 金闔를 보내 妙香山에서 慶其殿으로 還奉했다. 그후 仁祖14年(1636) 丙子胡亂이 勃發하자 御眞을 茂州 赤裳山城으로 疏開移安하였다가 亂이 끝난후 다시 慶其殿으로 還奉했다. 그후 肅宗14年(1688)에는 御眞을 模寫하기 위해 서울로 移安한 적도 있었다.

17) 太祖7年(1398) 3月初 6日 癸丑條에 依하면 判三司事 僕 長壽로 하여금 임금의 御眞을 鷄林府에 奉安하였다 하였는데 이 鷄林府란 곳 慶州로서 集慶殿의 殿號가 부쳐지기는 世宗24年(1442) 6月 22日이었다. 또한 同王때에 殿字를 改造하였고, 宣祖25年(1592) 倭亂으로 말미암아 御眞을 江陵으로 移封한후는 그곳에서 奉安하였다. 그후 仁祖9年(1631) 江陵 集慶殿이 燒失되고 가을에 다시 御眞을 模寫 江陵에 移封했다.

18) 「世宗實錄」卷96 同王24年(壬戌)6月 22日條

19) 「中宗實錄」卷55 同王20年(乙酉)8月 條 및 「增補文獻備考」第59 「影幀」條 「明宗實錄」卷8 同王3年(戊申) 10月(辛亥)條 「太祖影幀有二十六 軸而有侍中時寫眞……中略……成廟畫像初及一軸而後因改畫九軸」이라 보인다.

특히 중종(中宗)의 어진(御眞)은 공우(公祐) 이상좌(李上佐)와 석(石) 경(璟)으로 하여금 추사(追寫)토록 하였으나 도사(圖寫)된 익선관본(翼善冠本)이 전혀 방불(髣髴)치 않았던 관계(關係)로 화원(畫員)을 치죄(治罪)하자는 주장(主張)까지 대두(擡頭)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한편 남별전(南別殿)은 서울의 남쪽 훈도방(薰陶坊)(현(現) 우동(芋洞))에 위치(位置)하고 원래(原來)는 세조(世祖)(1455~1468, 재위(在位))의 딸 의숙공주(懿淑公主)가 거주(居住)하던 집이며 또한 단경왕후(端敬王后)²²⁾(1487~1557)가 왕후(王后)의 자리를 물러나서 거처(居處)하던 곳이기도 하다. 광해(光海)2年(1610)에는 공빈김씨(恭嬪金氏)(1553~1577)의 묘(墓)로 삼아 봉자전(奉慈殿)이라고도 하였고²³⁾ 동왕(同王)11年(1619)에는 태조(太祖)와 세조(世祖)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으며 인조(仁祖)15年(1637)에는 건물(建物)을 중수(重修)하여 원종(元宗)(1580~1619)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다. 숙종(肅宗)3年(1677)에는 본전(本殿)을 증축(增築)하여 第2, 3실(室)에는 세조(世祖)와 원종(元宗)을 봉안(奉安)하고 第1실(室)은 비워두었다가 숙종(肅宗)14年(1688)에 이르러 낭원군(郎原君) 이간(李?)(1640~1699)의 상소로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을 모사(模寫)하여 봉안(奉安)하였으며 동왕(同王)16(1690)년에는 남별전(南別殿)의 전호(殿號)를 영희전(永禧殿)으로 개호(改號)하였던 것이다²⁴⁾ 그후 영조(英祖)24年(1748)에 2개실(個室)을 증축(增築)하고 선원전(璿源殿)에 봉안(奉安)하였던 숙종(肅宗)의 어진(御眞)을 第4실(室)로 이봉(移奉)하였다. 또한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한 곳은 영희전(永禧殿) 뿐만이 아니라 선원전(璿源殿)에서도 봉안(奉安)하였으니 원래(原來) 문소전(文昭殿) 동북(東北)쪽에 위치(位置)하였으며 예종원년(睿宗元年)(1469)에는 환조이하(桓祖以下) 영정(影幀)23축함(軸函)을 봉안(奉安)했고 성종(成宗)3年(1472)에는 화원(畫員) 근제(謹齊) 최경(崔涇)과 안귀생(安貴生)으로 하여금 소혜왕후(昭惠王后)(덕종비(德宗妃):1437~1504)와 세조대왕(世祖大王)(1455~1468) 그리고 예종대왕(睿宗大王)(1468~1469 재위(在位))의 어진(御眞)을 모사(模寫)하여 봉안(奉安)케 하고 신숙주(申叔舟)(1417~1475)로 하여금 영모록(永慕錄)을 작성(作成)케 하였으며²⁵⁾ 그후 중종(中宗)34年(1539)에는 태종대왕(太宗大王)(1401~1418, 재위(在位))과 정안왕후(定安王后)(정종비(定宗妃):1355~1412)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다. 하지만 명종(明宗) 3年(1548) 10월에 종박사제조(宗簿寺提調) 홍섬(洪暹)(1504~1585)이 품신(稟申)한 바로는 어진(御眞)을 전내(殿內)에 쌓아두어 퇴색(退色)하고 먼지와 때가 묻어 만세(萬歲)후에 뒤섞이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초본(初本)과 부분(副本)을 산릉(山陵)이나 종묘(宗廟) 혹(或)은 문소전(文昭殿) 북(北)쪽에 땅을 골라 묻기를 청(請)하여 시행(施行)케 하기도 한다.²⁶⁾ 그후 병란(兵亂)으로 어진(御眞)은 산질(散秩)되고 전우(殿宇)는 소실(燒失)되어 숙종승하후(肅宗昇遐後) 인원대비(仁元大妃)(숙종비(肅宗妃):1687~1757)의 미지(微旨)로 창덕궁내(彰德宮內)에 재건(再建)하고 숙종(肅宗)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케 하였다. 그후(後) 정조즉위년(正祖卽位年)(1776)에는 영조(英祖)의 어진(御眞)을,

20) 「增補文獻備考」卷59 禮考6 「影殿」璿源殿條 「補明宗三年 十月宗簿寺提調洪暹曰……太宗, 世宗, 世祖亦皆有影幀 德宗, 成宗, 中宗 影幀皆追寫於昇遐之後而」라 하였다.

21) 「明宗實錄」卷9 同王4年(己酉) 9月(庚辰)條 「前略……教之翼善冠影幀專不髣髴心實未安待罪其時畫師請推考治罪……下略」 보인다.

22) 中宗妃 姓은 居昌愼氏, 左議政 守勤(1450~1506)의 딸로 燕山君5年(1499) 府夫人에 冊封되었고 中宗反正(1506)으로 王后가 되었으나 그의 父 守勤이 燕山君을 爲해 反正謀議에 反對한 일로 成希顔(1491~1513) 등에게 殺害된지 7일만에 廢位되었다.

23) 前揭註20 永禧殿條

24) 前揭 註參照

25) 前揭 註20 璿源殿條

26) 前揭註20 璿源殿條 「……積殿內色退塵垢萬代之下恐有混淆之弊初本副件或山陵或宗廟或文昭殿北擇地理□便也從之」라 보인다.

순조원년(純祖元年)(1801)에는 정조(正祖)의 어진(御眞)을 헌종(憲宗)12年(1826)에는 순조(純祖)와 문조(文祖)의 어진(御眞)을 철종(哲宗)2年(1846)에는 헌종(憲宗)의 어진(御眞)을 고종(高宗) 광무(光武)4年(1900)에는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을 각각(各各) 봉안(奉安)했다.²⁷⁾ 그러나 동년(同年)4月 14日 축시(丑時)에 경운궁(慶運宮) 선원전정전(璿源殿正殿) 화재(火災)로 말미암아 칠개실(七個室)에 봉안(奉安)된 어진(御眞)이 모두 소실(燒失)되었으니 이는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어진(御眞)을 비롯하여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문조(文祖), 헌종(憲宗)의 어진(御眞)이었다. 그리하여 당일(當日)로 종친(宗親)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소복(素服)으로 삼일간(三日間) 정사(政事)를 정지(停止)하는 한편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1842~?)을 영정모사도감(影幀摹寫圖鑑) 및 진중건도감도제조(眞殿重建圖鑑都提調)로 임명(任命)하는 한편 민영환(閔泳煥)(1861~1905), 김석진(金奭鎭)(1843~1910) 조희일(趙熙一), 신기선(申箕善)(1851~1909) 등(等)을 제조(提調)로 삼아 그 업무(業務)를 맡아보게 하였다. 한편 어진이모작업(御眞移摹作業)에 있어 그 원본(元本)으로는 영희전(永禧殿) 봉안(奉安)의 숙종대왕어진(肅宗大王御眞)과 순조숙황제어진(純祖肅皇帝御眞), 냉천정봉안(冷泉亭奉安)의 영조대왕어진(英祖大王御眞), 평악정봉안(平樂亭奉安)의 정조선황제어진(正祖宣皇帝御眞), 문조익황제어진(文祖翼皇帝御眞), 철종대왕어진(哲宗大王御眞)을 각각(各各) 선정(選定)하고 따라서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어진(御眞)은 선원전본(璿源殿本)으로 하기로 하였고 그 봉안일자(奉安日字)는 음(陰)9月 28日로 품신(稟申)하여 결정(決定)하기에 이른다.²⁸⁾ 이렇게 서둘러 진행(進行)된 어진모사작업(御眞摹寫作業)은 다음해 2月初 4日 고종황제(高宗皇帝)는 흥덕전(興德殿)에서 동궁(東宮)을 비롯한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과 정이품이상(正二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을 입참(入瞻) 봉심(奉審)한 후(後) 태조(太祖), 헌종대왕(憲宗大王)의 신본(新本)과 정조(正祖), 문조익황제어진(文祖翼皇帝御眞)의 구분(舊本)에 대(對)한 표제(標題)를 기입(記入)하게 하였다.²⁹⁾ 그렇지만 선원전(璿源殿)의 역사(役史)는 다음해 봄에 완성(完成)되어 비로소 6月 12日 각실(各室)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후 작헌례(酌獻禮)를 행(行)함으로써³⁰⁾ 화재(火災)를 당(當)한지 8개월(個月)만에 원상(原狀)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곳으로는 봉선전(奉先殿)³¹⁾, 그리고 덕종(德宗)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의묘후전(懿廟後殿)³²⁾이 있고 또한 영조(英祖)의 동궁시절영정(東宮時節影幀)을 봉안(奉安)하였던 태녕전(泰寧殿)³³⁾, 숙종(肅宗)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강화(江華)의 장녕전(長寧殿)과 영조(英祖)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만녕전(萬寧殿), 정조(正祖)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수원(水原)의 화녕전(華寧殿), 철종(哲宗)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던 종친부내(宗親府內)에 있는 천한전(天漢殿), 망묘루(望廟樓), 평락정(平樂亭) 등(等)을 들 수 있다.

2. 군복(軍服)의 연원(淵源)

27) 前掲註20 參照

28) 「高宗實錄」卷40 光武4年(庚子)10月 14日 同 10月 26日條

29) 前掲卷41 光武25年(辛丑)2月初 3日 條 「詔曰 明日興德殿展謁後親奉審粧軸矣東宮排參之節, 依例磨鍊時原任大臣宗親及正二品以上入瞻, 詔曰, 太祖高皇帝御眞憲宗大王御眞新本標題正祖宣皇帝御眞文祖翼皇帝御眞舊本標題, 明日當於興德殿內親書矣」라 보인다.

30) 前掲 6月 13日條

31) 「增補文獻備考」第59 「禮考」影幀條 睿宗元年(1469) 경기 양주광능 봉선사 동쪽에 창건함.

32) 前掲 成宗의 生父로 成宗4年(1473)에 御眞을 奉安하였다.

33) 前掲 肅宗이 下賜한 影幀으로 英祖21年(1745) 泰寧殿에 奉安하게 하였다.

원래군복(原來軍服)은 군인(軍人)의 제복(制服)으로 옛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제왕(帝王)이 유사시(有事時) 친정(親征)을 한다거나 평시(平時)에 있어서도 유사시(有事時)에 대비(對備)한 훈련(訓練)이나 대열(大閱)에 임석(臨席)할 때에는 군복(軍服)을 착용(着裝)하여 그 위엄(威嚴)을 과시(誇示)하였던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나 고구려벽화(高句麗壁畫) 그리고 출토(出土)되는 유물(遺物)을 통(通)해 보아 갑주(甲冑) 외(外)에 모자(帽子)는 채색(彩色)의 책(幘)이나 새깃으로 장식(裝飾)한 조우관(鳥羽冠) 등(等)을 쓰고 저고리는 장유(長褸)로서 허리에는 속대(束帶)를 띠었으며 그 소속(所屬)을 나타내는 장표(章標)로는 녹색(綠色), 자색(紫色), 백색(白色), 비색(緋色), 황색(黃色), 벽색(碧色), 적색(赤色), 청색(靑色) 등(等)으로 옷깃이나 가슴에는 반달(半月) 모양을 만들어 달았고 바지는 장과(長袴)로 하여 편의상(便宜上) 행전(行纏)이나 장화(長靴) 그리고 운두가 얇은 신을 신은 것으로 여겨진다.³⁴⁾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대개 전조(前朝)의 제도(制度)를 승습(承襲)하였지만 성종(成宗)3年(983)에는 복색(服色)을 새로이 제정(制定)하였고³⁵⁾, 그후 의종(毅宗)21年(年)(1167)에는 부병(府兵)의 복장(服裝)을 자색(紫色)으로 제정(制定)하여 착용(着用)케 하기도 하였다.³⁶⁾ 또한 중앙군(中央軍)의 직제중(職制中) 직급별(職級別) 군복(軍服)을 살펴보면

첫째, 상육군(上六軍)은 갑주(甲冑)인데 허리에는 오채수화(五采繡花)로 장식(裝飾)된 띠 10개(個)를 드리우게 하였고,

둘째, 왕(王)을 호종(扈從)하는 의장대(儀仗隊)의 모자(帽子)는 절각복두(折脚僕頭)나 흑(或)은 금화대모(金花大帽)를 쓰고 또한 의복(衣服)은 구문금포(毬文錦袍)에 도금대(鍍金帶) 그리고 분홍무늬가 있는 비단옷에 흑서대(黑蓍帶)를 띠며,

셋째, 기병(騎兵)은 무늬있는 비단모자와 자색(紫色)비단 전포(戰袍)에 흰바지와 짚신을 신고,

넷째, 해군(海軍)은 황색사(黃色絲)로 반조(盤鷲)를 자수(刺繡)한 청포착의(靑袍窄衣)에 붉은 가죽과 구리로 장식한 띠를 띠었다.³⁷⁾ 이와같은 제도(制度)는 주(主)로 왕성(王城)을 수비(守備)하거나 호위임무(護衛任務)를 띤 근왕병(勤王兵)의 의식용(儀式用) 복식(服飾)이며, 유사시(有事時) 출전(出戰)하는 전투병(戰鬥兵)의 복장(服裝)은 역시(亦是) 갑주(甲冑)가 위주(爲主)였던 것이다. 하지만 우왕(禑王)3年(1377) 10月 화통도감(火桶都監)이 설치(設置)되고 과학기술무기(科學技術武器)인 화포(火炮)가 점진적(漸進的)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이제까지의 제도(制度)와는 차등(差等)이 있었으니 이는 전술적(戰術的) 전략(戰略)의 개념(概念)이 개선향상(改善向上)되었던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군복(軍服)도 그 영향력(影響力)이 미쳐 행동(行動)에 둔중(鈍重)한 의복(衣服)보다는 경쾌(輕快)한 의복(衣服)으로 개선(改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즉(卽) 태종(太宗)6年(1406)에는 제도(諸道)의 지방군(地方軍) 복장(服裝)을 청색방의(靑色防衣)로 개정(改定)하는³⁸⁾ 한편 세종(世宗)7年(1425)에는 시위군사(侍衛軍士)의 복장(服裝)을 행동(行動)에 민첩(敏捷)하고, 경쾌(輕快)한 첩리(帖裏)를 착용(着用)케 하였던 것이다.³⁹⁾ 그후 성종(成宗)22年(1491) 여진정벌(女眞征伐)을 위(爲)해 출동(出動)하는

34) 「東京通志」卷之二「眞興王」甲子條 및 蔡秉瑞「安岳地方의 壁畫古墳」安岳3號墳 各種儀仗兵條參照, 白山學報 第2號 白山學報刊 1967)

35) 「高麗史」志卷39 刑法, 金榮淑編 韓國服飾資料選集 上古, 高麗篇, p207.

36) 前掲「高麗史節要」卷11 毅宗莊孝大王21丁亥條 p220.

37) 徐 兢(1091~1153)著 「宣和奉使高麗圖經」第11卷 仗衛條.

38) 「太宗實錄」卷2 同王6年(丙戌)閏7月 14日條

39) 「世宗實錄」卷28 同王7年(乙巳)4月初 1日條 「傳旨兵曹今後門外行幸時侍衛軍士並令着帖裏」라 한다.

사병(士兵)의 군복(軍服)은 그 길이는 짧게 소매는 좁게 하는 한편 가슴에는 소속위(所屬衛)를 나타내는 장표(章標)와 모자(帽子)에는 초기(肖旗)를 꽃도록 하였다.⁴⁰⁾ 이러한 제도(制度)는 그대로 이어져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1545~1598)도 삼도수군(三道水軍)에게 호의(號衣)를 입게하여 그 소속(所屬)을 표시(表示)함으로써 지휘(指揮)에 편리(便利)하게 하였다.⁴¹⁾ 더욱 임진(壬辰), 병자(丙子) 양란(兩亂)이 경과(經過)한 후(後)에는 더욱 이에 대(對)해 강조(強調)된바 있으니 인조(仁祖)26년(1648)과⁴²⁾ 효종(孝宗)6년(年)(1655)에는 군인(軍人)들의 소매너비 줄이기와 옷길이를 짧게 하는 한편 효종(孝宗)은 위졸(衛卒)들의 의복(衣服)을 선명(鮮明)하고 화려(華麗)하게 하기 위하여 비단 입을 것을 허락(許諾)하는 특전(特典)을 주기도 하였다.⁴³⁾ 그후(後) 영조(英祖)9년(1723)에는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보병(步兵)도 호의(號衣)를 입도록 제정(制定)하였고,⁴⁴⁾ 정조(正祖)17년(1793)에 이르러서는 이제까지의 제도상(制度上) 군복(軍服)은 용복(戎服)과 군복(軍服)으로 구분(區分)되었지만 용(戎)과 군(軍)은 뜻이 동일(同一)하기 때문에 용복(戎服)에 대(對)해서만은 폐지론(廢止論)이 대두(擡頭)되었지만 첩리(帖裏)는 구제(舊制)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하여 그대로 주립(朱笠) 또는 칠사립(漆紗笠)에 당상관(堂上官)은 감색첩리(監色帖裏)를 당하관(堂下官)은 청색(青色)(동가시(動駕時)는 홍색(紅色))을 착용(着用)토록 하였다.⁴⁵⁾ 한편 군복(軍服)은 직령포(直領袍)로서 양겨드랑과 등술기 하부를 트고 소매는 붉은 동을 달았으며, 또한 전복(戰服)은 군복(軍服)과 같으나 다만 소매가 없는 것으로 즉 양겨드랑미과 등술하부가 트인 옷인데 군복(軍服)위에 덧입고 허리에는 광대(廣帶)와 전대(戰帶)를 띠다.

전립(戰笠)은 대체(大體)로 두가지로 분류(分類)되는데 첫째로는 모(帽)와 침(簷)위에 저모(豬毛)를 타져서 깔고 밑으로는 안올림을 한 전립(戰笠)과 둘째로는 진사(眞絲)로 만든 전립(戰笠)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관진(有官戰)에서도 고관(高官)들이 착용(着用)한 것이지만 그 이하(以下)는 그보다 질(質)이 좋지 못하였다. 다만 직품(職品)을 구별(區別)하는 것은 도금(鍍金), 조금(雕金), 순은(純銀), 종결(繫結), 목각(木刻) 등(等)의 쟁자(鑿子)와 상모(象毛)를 그리고 그 아래로는 구영(具纒)을 드리우게 하였다.⁴⁶⁾ 그후 순조(純祖)12년(1812)에는 훈국병마(訓局兵馬)의 전립(戰笠)은 전우(轉羽)(상모(象毛))로 방색(方色)을 구별(區別)케 하여 대오(隊伍)를 정제(整齊)케 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러한 유원(悠遠)한 역사(歷史)와 더불어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한 재래식(在來式) 군복(軍服)은 고종(高宗)32년(1895) 4월 9일 칙령(勅令) 第98號 육군복장령(陸軍服裝令)이 반포(頒布)되고 서구식군복(西歐式軍服)으로 개혁(改革) 제정(制定)⁴⁸⁾됨에 따라 그 자태(姿態)를 잃게 되었다.

3. 어진복원(御眞復元)의 실상(實相)

40) 「成宗康靖大王實錄」卷253 同王22年(辛亥)5月初 4日條

41) 「亂中日記」甲午9月 24日(乙亥)「分號衣左道則黃衣九件右道則紅衣十件慶尙則黑衣四件」이라 보인다.

42) 金榮淑篇 「韓國服飾資料選集」Ⅱ p211. 仁祖26年(戊子)10月 甲辰條.

43) 前揭 p219 孝宗7年(丙申) 1月 丁未條 「命兵曹 令禁衛將士狹袖短衣 時上留心戎事 衛卒衣服 務令鮮華 許着錦綺」라 보인다.

44) 前揭 p340 英祖19年(癸亥)9月 戊寅條

45) 前揭 p405~410 正祖17年(癸丑)10月 戊辰條

” 10月 己巳條

” 10月 辛巳條

46) 前揭 p405 正祖17年(癸丑)10月 戊辰條

47) 「增補文獻備考」第10 兵考 制置 純祖12年(壬申) 6月條

48) 「議奏」七 開國五百四年 四月 九日 內閣總理大臣, 軍部大臣署理條

우선 어진모사복원(御眞模寫復元)에 대(對)한 내용(內容)을 상고(詳考)하기에 앞서 대왕(大王)의 생애(生涯)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第21대(代) 영조대왕(英祖大王)(1724~1776, 재위(在位))의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둘째아들 은언군(恩彦君)(1755~1801)의 장남(長男)인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광(壙)의 셋째 아들로 순조(純祖)31年(1831) 6月 17日에 탄생(誕生)했다.

초명(初名)은 원범(元範)이요 자(字)는 도승(道昇)이고, 號는 대용제(大勇齊), 휘(諱)는 승(昇)으로서⁴⁹⁾ 헌종(憲宗)10年(1844) 8月 형(兄) 회평군(懷平君) 명(明)의 옥사(獄死)로 가족(家族)과 더불어 강화(江華)에서 유배생활(流配生活)을 하던 중 헌종(憲宗)(1834~1849, 재위(在位))이 후사(後嗣)없이 붕어(崩御)하자 대왕비(大王妃)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87: 순조비(純祖妃))의 명(命)으로 궁중(宮中)에 들어와 덕완군(德完君)에 봉(封)해 짐과 동시(同時)에 대통(大統)을 이어 조선왕조(朝鮮王朝) 第25대왕(代王)으로 보위(寶位)에 올랐다. 즉위후(卽位後) 최초(最初)에는 정사(政事)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고 동왕(同王)2年(1851)에는 김문근(金汶根)(1801~1863)의 딸 김씨(金氏)(1837~1878: 철인장황후(哲仁章皇后))를 왕비(王妃)로 맞았다. 그는 즉위(卽位)한지 3年만에 친정(親政)을 하였지만 정치(政治)에 어두워 삼정(三政)을 바로 잡지 못하였는바 이는 당시(當時) 안동김씨일파(安東金氏一派)가 권세(權勢)를 오로지 한 까닭으로 정치(政治)는 매우 문란(紊亂)하여 극심(極甚)한 민생고(民生苦)를 자아내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각지(全國各地)에서는 민란(民亂)이 유발(誘發)하는 한편 동학(東學)이라는 새로운 종교세력(宗教勢力)이 창립(創立)되어 이 혼란(混亂)을 구제(救濟)하려 하였고, 따라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천주교(天主教)의 기세(氣勢) 또한 열(熱)을 가(加)하여 확고(確固)한 기반(基盤)을 구축(構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내(國內) 정세(政勢)속에 참다운 친정(親政)도 해보지 못한채 보위(寶位)에 오른지 14年만인 계해년(癸亥年)(1863) 12月에 初8日 33세(歲)를 일기(一期)로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昇遐)하였던 것이다.⁵⁰⁾

이러한 연유(緣由)를 간직한 그의 원래(原來)의 어진(御眞)은 그가 보위(寶位)에 임어(臨御)하는 동안 모두 사본(寫本)을 도사(圖寫)하였는바 최초(最初)에는 동왕(同王)3年(임자(壬子):1852)에 2본(本)을 도사(圖寫)하였는데 그중 1본(本)은 소본(小本)이 었다. 그후 두 번째로는 동왕(同王)12年(신유(辛酉):1861)에도 역시(亦是) 2본(本)을 도사(圖寫)하였는데 때에는 군복본(軍服本)과 강사포본(絳紗袍本)으로 각각(各各) 도사(圖寫)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승하(昇遐)하기 3년전(年前)인 신유(辛酉)(1861)年 2月 23日부터 그의 어진도사업무(御眞圖寫業務)가 개시(開始)되어 때에 그 도사업무(圖寫業務)를 주관(主管)할 책임부서(責任部署)가 결정(決定)되었으니 검교제학(檢校提學) 김병익(金炳翼)(1818~1875)을 비롯 김병국(金炳國)(1825~1904), 원임제학(原任提學) 남병철(南秉哲)(1817~1863), 직제학(直提學) 김병필(金炳弼)(1839~1870) 등(等)이 감동관(監董官)에 임명(任命)되었으며, 또한 직접(直接) 도사(圖寫)를 담당(擔當)할 화원(畫員)으로서는 당시(當時) 산수(山水)와 인물(人物)에 있어 일기수운(逸奇秀潤)의 필치(筆致)를 자랑하는 희원(希園) 이한철(李漢喆)(1808~1880)을 위시(爲始) □당(堂) 김하중(金夏鍾)(1793~?), 백영배(白英培), 운초(雲樵) 박기준(博基駿), 송석(松石) 이형록(李亨祿)(1808~?) 임당(林塘) 백은배(白殷培)(1820~1894), 혜산(惠山) 유숙(劉淑)(1827~1873) 등(等)과 도화서원(圖畫署員)으로는 운계(雲溪) 조중묵(趙重默)과

49) 「韓國史」年表 「震檀學會」刊(4292) 璿源系譜 哲宗條 p171

50) 「韓國史事典」 「豊文社」刊(1974)

김용원(金鏞元) 등(等)⁵¹⁾이 왕(王)의 유히(允許)를 받고 선임(選任)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사업무상(圖寫業務上)의 모든 일정(日程)은 김창훈일관(金昌勳日官)으로 하여금 택일(擇日)케 하여 진행(進行)토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도사업무(圖寫業務)를 시행(施行)할 처소(處所)로서는 경희궁(慶熙宮) 흥정당(興政堂)으로 결정(決定)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진도사업무(御眞圖寫業務)가 완료(完了)되기는 동년(同年)4월 21일에 어진(御眞)을 주합루(宙合樓)에 봉안(奉安)함과 동시(同時)에 그 이튿날에는 동(同) 도사업무(圖寫業務)를 감동(感動)한 각신(閣臣)과 화원(畫員)들에게 논공시상(論功施賞)을 사급(賜給)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다.⁵²⁾

그후 1950년 6.25당시(當時) 부산(釜山)으로 다른 어진(御眞)과 더불어 소개(疏開)하였을 때 불의(不意)의 화재(火災)를 입었다고 구전(口傳)되는 이 어진(御眞)은 현재(現在) 유전(遺傳)되는 것은 손상(損傷)을 입은 영조대왕(英祖大王)의 어진(御眞)과 그의 연□군시절(延□君時節)의 영정(影幀)⁵³⁾ 그리고 익종대왕(翼宗大王)(1809~1830)의 어진(御眞)⁵⁴⁾ 또한 문무신료(文武臣僚)의 반신상(半身像)도 33점(點)이 유존(遺存)되나 대부분(大部分)이 반소(半燒)된 상태(狀態)이다.⁵⁵⁾ 필자(筆者)가 이러한 어진(御眞)과 신료(臣僚)의 초상(肖像)을 □망(□望)할 기연(機緣)을 갖진 것은 1969년 6월 당시(當時) 오대궁왕실유물조사(五大宮王室遺物調査)를 위촉(委囑)받고 참가(參加)함에 따라 그 동기(動機)가 되었고, 또한 그 후(後) 출판(拙編) 원색한국명인초상대감(原色韓國名人肖像大鑑) 자료수집(資料收集)때에도 봉심(奉審)은 하였지만 반소(半燒)된 어진(御眞)을 차마 수록(手錄)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복원모사(復元模寫)를 주선(周旋)하여야 하겠다는 의사(意思)를 간직하고 있던차 지난해(86) 5월 10일 한국전통미술회회장(韓國傳統美術會會長) 최광수(崔光守) 박사(博士)께서 살수대첩(薩水大捷)의 명장(名將) 을지문덕장군(乙支文德將軍)과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영웅(英雄) 이순신(李舜臣)(1545~1598)장군(將軍)의 웅자(雄姿)를 육필(肉筆)로 제작(製作) 육군본부(陸軍本部)에 기증(寄贈)함에 따라 필자(筆者)는 절호(絶好)의 기회(機會)로 간주(看做) 최회장(催會長)께 어진(御眞)에 대(對)한 전후전말(前後顛末)을 소상(昭詳)히 설명(說明)하고 철종어진(哲宗御眞) 복원모사(復元模寫)할 것을 의논(議論)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事實)을 전(傳)해 받은 최회장(催會長) 역시(亦是) 제왕(帝王)의 어진(御眞)을 복원모사(復元模寫)하는 것은 역사적(歷史的)인 사업(事業)이니 미력(微力)하나마 최선(最善)을 다해 국가(國家)에 헌납(獻納)하겠다」고 쾌(快)히 승낙(承諾)하기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본사업(本事業)을 추진(推進)하기 위(爲)해 한국전통미술인회(韓國傳統美術人會) 사업(事業)으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건의(建議)하여 관계관(關係官)의 적극적(積極的)인 협조(協助)로 말미암아 1987년 2월 初6日 정식(正式)으로 승인(承認)을 받고 창덕궁(昌德宮)에 소장(所藏)된 철종어진(哲宗御眞)을 시내(市內) 마포구(麻浦區) 합정동(合井洞) 봉산한의원(蓬蒜漢醫院) 최박사(崔博士) 화실(畫室)로 정중(正中)히 이봉(移奉)하여 모사업무(模寫業務)를 착수

51) 安輝濬署 「韓國繪畫史」(一志社刊)1986 歷代畫家略譜條

52) 「御眞圖寫事實」藏書閣 史部 政書類 番號2-2761冊數1-1, 哲宗辛酉 4月21日 및 22日條

「御眞奉出時祇迎後陪進 御眞奉安于宙合樓」라 보인다.

53) 이 影幀은 肅宗40年(1714)에 圖寫한 것으로 紗帽團領에 白澤胸背차림이며 現在 王子君의 肖像으로는 唯一한 遺物이나 亦是半燒된 狀態인.

54) 純祖26年(1826)에 圖寫된 것이나 半燒된 狀態로서 特히 龍顏을 判別할 수 없을 程度이다.

55) 臣僚中 標題를 通해 判別할 수 있는 肖像을 간추려 보면 判書 鄭昌聖(1724~?), 判書 金華鎮(1728~1823), 判書 金魯鎮(1735~1788), 判書 李聖主(1732~?), 判書 嚴 瑋(1716~1786), 判書 李致中(1726~?), 參判 姜世晃(1712~1791), 知事 李明運 都總管 李昌運(1713~1791), 府使 趙英鎮(1737~?) 등 11名이고 그외 22名은 顔面만이 殘存하고 周圍가 燒失되어 題名判讀이 不可하였다.

(着手)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업무(本業務)를 개시(開始)하면서 벽두(劈頭)부터 애로(隘路)에 봉착(逢着)하게 되었으니

첫째, 원본(元本)대로의 규격(規格)에 맞는 광초(廣綃)를 구(求)하는 문제(問題)

둘째, 설채(設彩)에 있어 우리나라 국왕(國王)의 어진(御眞)이기 때문에 국산색채(國産色彩)를 사용(使用)하는 문제(問題)

셋째, 소실(燒失)된 부위(部位)의 자세(姿勢) 복원문제(復元問題)

넷째, 화문석(花紋席) 용(龍)의 자세(姿勢方向)문제

다섯째, 표구(表具)는 족자(簇子) 혹은 액자(額子)로 할것이나의 문제(問題) 등(等)인데 그리하여 본문제(本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爲)해 당국(當局)과 협의(協議)한 결과(結果) 그 대책(對策)으로 정재중문화재관리국장(鄭在鍾文化財管理局長)을 비롯 영정심의위원(影幀審議委員)인 서울대학교(大學校) 안휘준박사(安輝濬博士),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 유희경박사(柳喜卿博士), 그리고 필자(筆者) 등(等)으로 구성(構成)된 고증위원(考證委員)을 위촉(委囑)하고 지도(指導)와 고증(考證)을 담당(擔當)하게 하였다. 이는 그후 수차(數次)에 궁(巨)한 봉심고증(奉審考證)을 통(通)해 미진(未盡)한 곳을 상호(相互) 의견교환(意見交換)으로 보완(補完)하고 특(特)히 소실(燒失)된 부위(部位)는 잔존(殘存)된 좌측부위(左側部位)를 참작(參酌) 균형유지(均衡維持)에 노력(努力)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작가(作家) 최박사(崔博士)의 치밀(緻密)한 계획(計劃)과 능숙(能熟)한 기예(技藝), 그리고 투철(透徹)한 사명감(使命感)과 열성(熱誠)의 결정(結晶)으로 지난 5월 20日 드디어 완성(完成)을 보았던 것이다. 특(特)히 본고(本稿)에서 그대로 간과(看過)할 수 없는 사실(事實)은 모사과정(模寫過程)에서 최박사(崔博士)는 작업전(作業前)에는 반드시 목욕제계(沐浴齊戒)한 후 한복(韓服)으로 정장(正裝)하고 작업(作業)하는 것을 본(本) 복원모사업무(復元模寫業務)가 완료(完了)될 때까지 계속시행(繼續施行)하였고 따라서 그의 내상(內相) 김여사(金女史)께서도 부군(夫君)과 함께 모사작업(模寫作業)을 보조(補助)하였다는 일화(逸話)가 전(傳)하니 그 부부(夫婦)의 하고자하는 집념(執念)과 정성(精誠) 그리고 열의(熱意)에는 범우(凡愚)로는 상상(想像)도 못할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열(熱)과 성(誠)으로 이룩된 철종대왕(哲宗大王)의 군복어진(軍服御眞)은 6월초(月初) 5日 16:0 문화공보부장관실(文化公報部長官室)에서 작가(作家) 최박사(崔博士)와 관계관(關係官)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장관(長官)께 헌납(獻納)하고 이어 장관(長官)으로부터 최박사(崔博士)께 감사패(感謝牌)를 수여(授與)함으로써 이제까지 창덕궁(昌德宮) 일우(一隅)에서 화상(火傷)을 입은채 37년간(年間)이나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復元)되었기에⁵⁶⁾ 이를 원래(原來)의 신유(辛酉)(1861)본(本)과 복원본(復元本)을 비교(比較)하면서 그 어진(御眞)이 지닌 부분별(部分別) 구성(構成)대로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56) 御眞이 模寫되면 舊本은 洗綃埋安하는 것이 原則이나 本哲宗御眞은 비록 火傷을 입었다 하나 그대로 昌德宮에 所藏하였다.



사진 1 辛酉圖寫本哲宗御眞

사진 1. 신유도사본 철종어진(辛酉圖寫本哲宗御眞)



사진 2 復元模寫眞 哲宗御眞

사진 2. 복원모사(復元模寫)된 철종어진(哲宗御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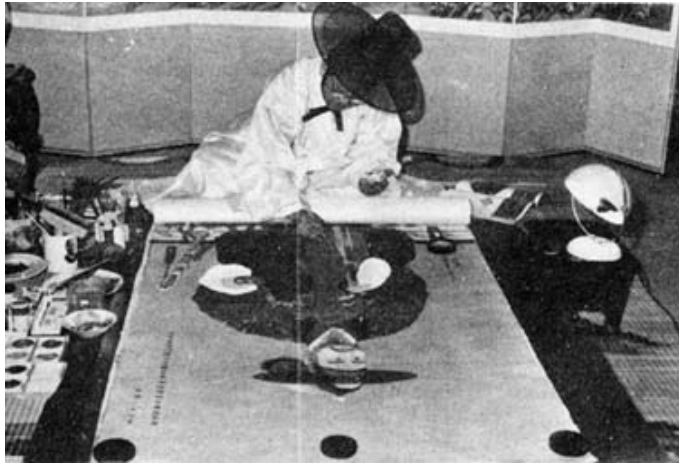


사진 3 御眞復元 模
寫作業中인 崔博士

사진 3. 어진복원(御眞復元) 모사작업중(模寫作業中)인 최박사(崔博士)

가. 전립(戰笠)

군복(軍服)에는 전립(戰笠)을 착용(着用)하는데 그 모양(模樣)은 모정(帽頂)이 언월형(偃月形)으로 둥굴린 총모자와 양태(涼太)로 구성(構成)되는바 이는 이미 고구려벽화(高句麗壁畫)에서 보이는 기마인물(騎馬人物)이 쓰고있는 모자(帽子)가 그 조형(祖形)을 이루고 있다.⁵⁷⁾ 이는 그후 여말(麗末) 이승인(李崇仁)(1349~1392)의 초상(肖像)과 조선조(朝鮮朝)의 생육신(生六臣)이 일인(一人)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1493)의 초상(肖像)에서와 같이 그 형태(形態)는 유전(遺傳)이 지속(持續)되었음을 지실(知悉)케 하고 있다.⁵⁸⁾ 또한 그 재료면(材料面)에 있어서도 짐승의 털을 다져서 담을 만들고 형(型)틀에 넣어 안올림을 한 고급스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안올림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흑립(黑笠)의 재료(材料)와 한가지로 천연잠사(天然蠶絲)인 촉사로 등사(騰絲)한 진사(眞絲)나 마모(馬毛)와 우모(牛毛) 그리고 죽사(竹絲)로 등사(騰絲)한 것 등(等)으로 제조(製造)되기도 하는바 이렇게 제조(製造)된 전립(戰笠)에는 정개(頂蓋)에 직급(職級)에 해당(該當)되는 쟁자(簷子)를 달고 또 그 쟁자(簷子)에는 공작우(孔雀羽)나 삭모(槩毛)를 드리워 장식(裝飾)한다. 그리고 대우와 양태 연결부분(連結部分)에는 소속위(所屬衛)의 색사(色絲)매듭을 걸어 소속(所屬)을 표시(表示)하고 또 그 좌우(左右)에는 밀화선(密花蟬)을 달며 양태(涼太)밑 안쪽으로는 남색운문단(藍色雲紋緞)으로 안올림을 한다. (단(但), 진사(眞絲)나 마모제(馬毛製) 전립(戰笠)은 예외(例外)) 그리고 안팎대와 양태연접처(涼太連接處) 좌우(左右)에는 밀화구영(密花具纓)과 산호격자(珊瑚格子)를 간걸러 꿰어 달게 함으로서 전립(戰笠)이 형성(形成)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물(遺物)의 전존실태(傳存實態)에 있어 짐승의 털을 다져 만든 전립(戰笠)은 현재(現在)까지 흔히 소장(所藏)하고 있는 상태(狀態)를 볼 수 있으나, 진사제(眞絲製) 전립(戰笠)은 매우 희귀(稀貴)한 것으로 현재(現在) 전존(傳存)하는 것으로는 충북대학교박물관(忠北大學校博物館)에 고종말(高宗末) 철원도호부사겸관동병마방어사(鐵原都護府使兼關東兵馬防禦使)를 역임(歷任)한바 있는 이희진(李喜晉)의 전립(戰笠)이 유전(遺傳)되고 있을 뿐이다.⁵⁹⁾ 이는 그 재료(材料)가 진사(眞絲)일뿐 아니라 그 맨드리가 매우 정교(精巧)하여 현재(現在)도 윤기(潤

57) 李如星著 「朝鮮服飾考」(白樺堂刊)1947 五代服飾의 基本型 龕神塚着笠騎馬人物圖參照

58) 拙編 「原色 韓國名人肖像大鑑」(探究堂刊) 1972 圖版第10面參照

59) 同博物館에는 그의 後孫이 寄贈한 戰笠을 비롯한 教旨 그리고 高宗으로부터 받은 諭示等이 所藏되고 있다.

氣)가 흐르며 또한 정개(頂蓋)에 달란 쟁자(鎧子)도 원형(原形) 그대로를 유지(維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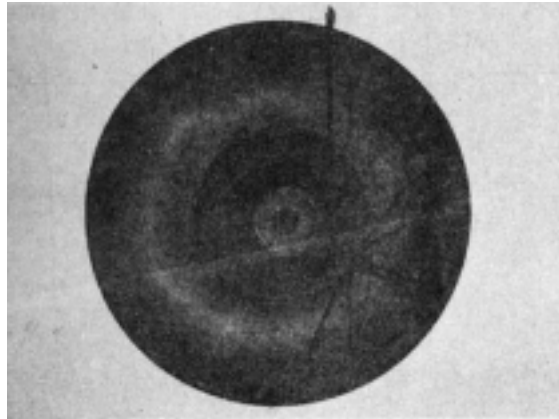


사진 4 李喜普의 戰笠

사진 4. 이희보(李喜普)의 전립(戰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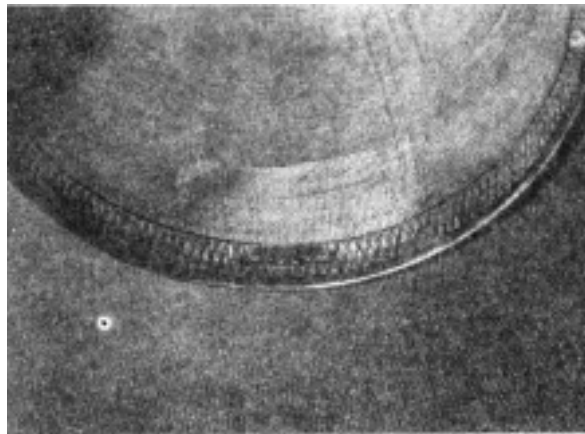


사진 5 戰笠 部分(안땀대)

사진 5. 전립(戰笠) 부분(部分)(안땀대)

어진(御眞)에 도사(圖寫)된 전립(戰笠)은 진사제(眞絲製)로서 정개(頂蓋) 즉(卽) 정곳에서는 옥(玉)으로 조각(彫刻)된 쟁자(鎧子)가 달리고 공작(孔雀)깃이 드리웠으며 운기는 언월형(偃月形)으로 둥굴려 총모자가 형성(形成)되었는데 이는 정자문(井字文)으로 섬세(纖細)하게 철선묘법(鐵線描法) 그대로를 표현(表現)하였다. 양태(涼太)로 원형(圓形)으로 둥굴리고 동시에(同時)에 사선(斜線)꼴로 그 내부(內部)와 외부(外部)에 연결(連結)하였는바 이는 춘잠토사묘법(春蠶吐絲描法)을 그대로 활용(活用)하였고, 탐건(宕巾)도 이마위 좌우(左右)로 연결(連結)된 부분(部分)은 세로선(線)이 굵고, 좌우(左右)로 연결(連結)된 선(線)은 세선(細線)으로 역시(亦是) 춘잠토사묘법(春蠶吐絲描法)을 적용(適用)하였다. 따라서 망건(網巾)도 이마 정중(正中)에서 좌우(左右)를 연(連)해 옥침판(玉枕板)으로 돌리우고 그 위를 탐건(宕巾)에 연결(連結)하는 곳까지 역시(亦是) 같은 묘법(描法)으로 처리(處理)하였다. 또한 총모자 정면(正面)에는 세로 6.9cm 가로 7.8cm와 원형도식(圓形圖飾)이 있는바 그안에는 용(龍)이 좌우(左右)에서 서로 대치(對峙)한 상태(狀態)로 미늘없이 선묘(線描)만으로 표현(表現)하였음을 볼

수 있는 바로서 그외(外) 쟁자(鎧子)를 비롯한 영자(纓子), 패영(貝纓)에 대해 좀더 그 근원(根源)을 살펴보고자 한다.

ㄱ) 쟁 자(鎧子)

쟁자(鎧子)란 전립정개(戰笠頂蓋)에 다는 장식(裝飾)의 일종(一種)인바 이는 이미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16年(1376) 7월에 제도화(制度化)되었고⁶⁰⁾,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조선정조(朝鮮正祖)17年(1793)에는 이를 도금(鍍金), 종금(鬃金), 순은(純銀), 종결(鬃結), 목각(木刻) 등(等)⁶¹⁾으로 위계(位階)를 구분(區分)하였으며, 현재(現在) 유물(遺物)로서는 전기(前記) 이희보장군(李禧普將軍)의 도금(鍍金) 선학쟁자(仙鶴鎧子) 망우당(忘憂堂) 광재우(郭再祐)(1552~1619)장군(將軍)의 청제쟁자(靑製鎧子), 육군박물관(陸軍博物館)의 착용자미상(着用者未詳)의 도금제선학쟁자(鍍金製仙鶴鎧子), 동아대학교박물관(東亞大學校博物館)의 도금제쟁자(鍍金製鎧子) 등(等)을 들 수가 있다. 한편 어진(御眞)의 전립쟁자문(戰笠鎧子文)은 봉(鳳)이 머리를 약간 위를 바라보고 입은 다문채 나래는 약간 위로 치켜들고 꼬리는 왼쪽으로 휘어 감으며 발은 과장(誇張)되게 표현(表現)하여 힘차게 오므린 자세(姿勢)이다. 그 밑으로는 봉(鳳)받침에 이어 중앙부(中央部)는 마치 보주형(寶珠形)으로 돌리었으나 후부(後部)에는 고리(環) 3개(個)를 연결(連結)하여 끝부분(部分)에는 공작(孔雀)깃을 소담스럽게 채색묘사(彩色描寫)한 까닭으로 마치 냉철함이 금방 공작(孔雀)에서 떨어진 감(感)을 자아내게 하고 따라서 하부(下部)는 정개(頂蓋)에 연결(連結)시켜 점선대(點線帶)로 계선(界線)을 형성(形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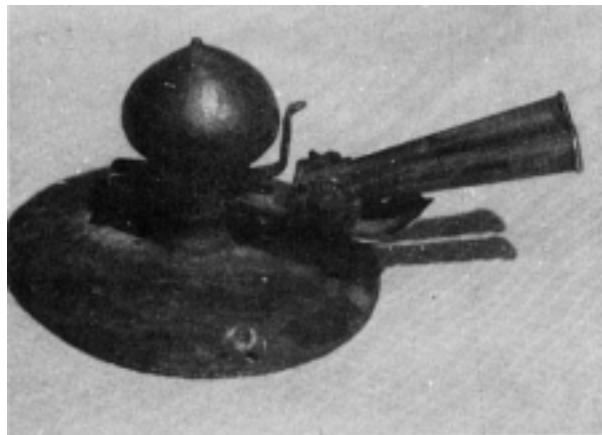


사진 6 忘憂堂 戰笠鎧子

사진 6. 망우당(忘憂堂) 전립쟁자(戰笠鎧子)

60) 「贈補文獻備考」卷79 禮考26 章服條

61) 「正祖實錄」卷46 同王17年(癸丑) 10月 戊辰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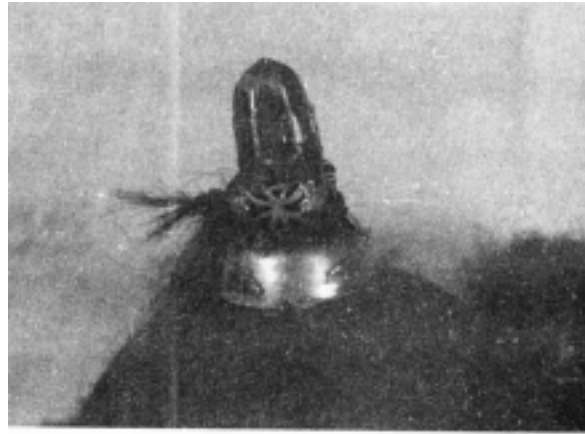


사진 7 東亞大 博物館 戰笠鎧子

사진 7. 동아대(東亞大) 박물관(博物館) 전립쟁자(戰笠鎧子)

(ㄴ) 구영자(鉤纓子)와 패영(貝纓)

전립양태(戰笠涼太)밑 즉 안팎대와 양태(涼太)가 연결(連結)되는 좌우(左右)에는 패영(貝纓)을 연결(連結)하기 위(爲)해 S모양(模樣)의 이 구영자(鉤纓子)는 영자(纓子)라고도 하는데 종이품(從二品) 이상(以上)의 위계자(位階者)는 도금(鍍金)한 것을 사용(使用)하나 보통은 은제(銀製)를 사용(使用)한다.⁶²⁾ 이 어진(御眞)의 구영자(鉤纓子)는 색채(色彩)는 백색(白色)이요, 좌우(左右)끝 부분(部分)은 황색(黃色)으로 묘사(描寫)되었다. 이어 거기에 연결(連結)되는 패영(貝纓)은 지름 2.3cm정도의 주황색(朱黃色)으로 표현(表現)하고 그 사이 마다에는 붉은색 격자(格子)를 도사(圖寫)하여 전체분위기(全體雰圍氣)를 매우 근엄(謹嚴)한 표정(表情)마저 자아내게 한다.

나. 용 안(龍顔)

용안(龍顔)의 방향(方向)은 우향(右向)하고 안면(顔面)은 진한 육색(肉色)으로 북채법(北彩法)을 썼고 머리와 눈썹 그리고 용안(龍顔)은 모두 세필(細筆)로 섬세(纖細)하게 그 부분(部分)에 따라 방향(方向)을 달리하여 율동적(律動的)인 면(面)을 살려 묘사(描寫)하였다. 특히 눈썹은 그 방향(方向)에 따라 생동감(生動感)을 주었으며, 콧마루와 이를 연한 콧방울의 선(線)은 강약(強弱)의 세선(細線)이 근육(筋肉)과 조화(調和)를 이루었다. 그리고 안정(眼睛)은 어진(御眞)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며 따라서 이는 망건(網巾)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와의 눈이 크고 작아지는 까닭에 논의(論議)의 대상(對象)이 되기도 하며 또 평시(平時)에 망건(網巾)을 쓰던 까닭에 비록 안채(眼彩)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쓴 자세(姿勢)로 도사(圖寫)하여야 한다는 기록(記錄)도 볼 수가 있는 부분(部分)이기도 하다.⁶³⁾ 또한 안정(眼睛)에는 그의 전신(傳神)이 담겨있고 따라서 전화면(全畫面)의 우열(優劣)을 좌우(左右)할만한 위치(位置)인 곳이어서 「범화상전신체어안정(凡畫像傳神在於眼睛)」이라고까지 표현(表現)하기도 한다.⁶⁴⁾ 특(特)히 이 어진(御眞)의 안정(眼睛)은 흰자위 부분상하(部分上下)에 육색(肉色)이 가(加)해졌고 따라서 동자(瞳子)의 홍채(紅彩)가 선명(鮮明)한 까닭으로 매우 영

62)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간) 1978 구영자조 참조

63) 「承政院日記」 第477 肅宗39年 癸巳4月 11日 戊午條 「願命曰 然則今番亦晚網巾而畫之乎未知何以爲之乎, 上曰 眼采雖少異而着網巾後畫之可乎」라 보인다.

64) 前掲 肅宗39年 癸巳4月 21日 戊辰條

롱(玲瓏)한 빛을 받히고 더욱이 속눈썹까지 세필(細筆)로 묘출(描出)해 생동감(生動感)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진 8. 용안부위(龍顔部位)

사진 8. 용안부위(龍顔部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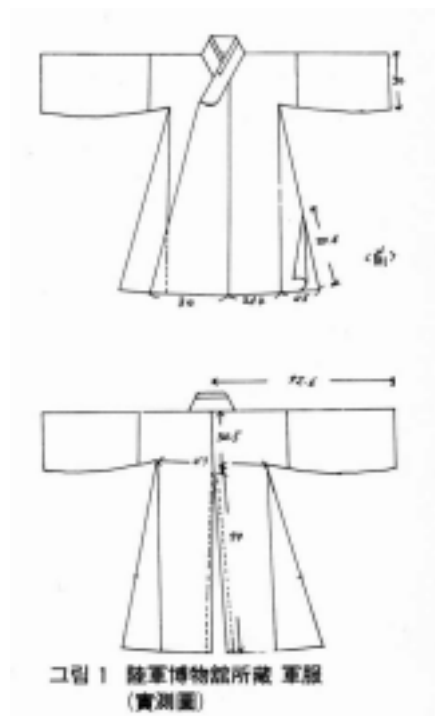


그림 1. 陸軍博物館所藏 軍服 (實測圖)

그림1 육군박물관소장(陸軍博物館所藏) 군복(軍服)(실측도(實測圖))

다. 군복(軍服)

군복(軍服)은 조선조(朝鮮朝) 후기(後期)의 칩리(帖裏)를 개조(改造)하여 간소화(簡素化)한

것으로 넓었던 소매를 좁혀 가지동으로 하고 가슴의 주름을 없애고 동시(同時)에 옆트임과 등술기는 진동선을 연(連)한 이하(以下)를 직할(直割)하여 착용자(着用者)의 활동(活動)을 편첩(便捷)하게 하였다.⁶⁵⁾ 현재(現在)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을 상고(詳考)하면 품질(品質)은 걸감이 주황색양태문갑사(朱黃色涼太文甲紗)인데 소매는 같은 품질이나 색깔만은 붉은색이며 안감은 남색갑사(藍色甲紗)로서 그 구성(構成)은 두루마기(주의(周衣))와 같이 직령(直領)이며 소매는 등을 따로이 덧대었고 따라서 거드랑옆트기와 등술이 진동선이하의 트임으로 동정과 고름을 달았다.⁶⁶⁾

어진(御眞)은 군복(軍服)차림으로 용교기(龍交倚)에 약간 우향(右向)한 전신좌상(全身坐像)의 자세(姿勢)로서 그 위풍(威風)이 매우 당당(堂堂)한 모습이다. 군복(軍服)의 색깔은 주황색(朱黃色)이고 소매동은 빨강색으로 옷전체(全體)에는 양태문(涼太文)과 운룡단문(雲龍團文)이 정교(精巧)하게 시문(施文)되었고 그 수려(秀麗)한 옷 매무새는 어느 한 곳도 미진(未盡)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程度)로 짜임새 있게 묘사(描寫)되었는바 이는 앞가슴 동정에서 보(補), 광대(廣帶), 전대(戰帶)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연(連)한 앞자락과 어깨에는 오색(五色)이 짙은 서운(瑞雲)속에 트림하는 용보(龍補)에서 소매부리에 이르기까지 유연(柔軟)한 그 묘사(描寫)는 매우 두드러진 표현(表現)의 기예(技藝)라 하겠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등채(등편(籐鞭))을 힘차게 거머쥐고 왼손은 자연(自然)스럽게 기자(倚子)손잡이에 놓은 자세(姿勢)인데 엄지에는 빨강색 포지(布地)로 감싸고 암각지를 끼워 그 손 또한 섬섬옥수(纖纖玉手)에 비(比)할만 하다. 또한 기자(倚子)뒤에는 표피(豹皮)를 깐 것이 요부(腰部)에서 약간(若干) 보이고 족좌(足座)에는 녹색(綠色)으로 승창에는 화문석(花紋席)무늬를 시문(施文)하였다.



그림 2. 창덕궁소장(昌德宮所藏) 전복(戰服)(실측도(實測圖))

65) 崔南善著 「朝鮮常識」 (東明社刊) 1948 風俗編 衣服條에는 帖裏가 改良된 것으로 되었으나 軍服은 이미 그 以前 부터 胃胃의 받침옷으로 着用되었음.

66) 陸軍博物館所藏軍服의 品質과 構成임.



사진 9 肩背補繡本

사진 9. 견배보수본(繭背補繡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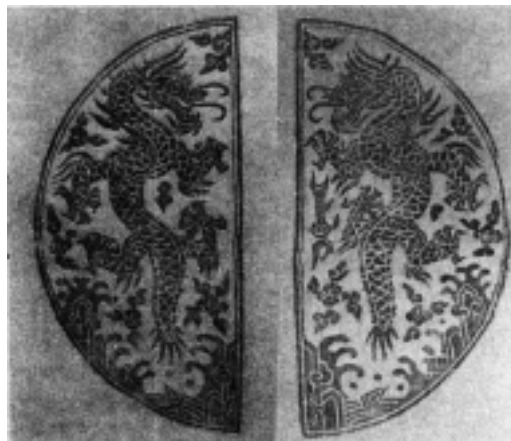


사진 10 胸背補繡本

사진 10. 흉배보수본(胸背補繡本)

라. 전복(戰服)

전복(戰服)은 군복(軍服)위에 덧입는 의복(衣服)으로 일명(一名) 답호(襜護), 쾌자(快子)라고도 하는바 이는 무관(武官)이 아닌 자(者)가 주의(周衣)위에 덧입고 사대(絲帶)를 띠면 예복(禮服)이 되기도 하였다.⁶⁷⁾ 이 답호(襜護)가 문헌상(文獻上)으로는 태종(太宗)과 세종조(世宗朝)에 걸쳐 의식(儀式)과 일반상제(一般喪制)를 법전화(法典化)하고 의례상정소제조(儀禮詳定所提調)를 역임(歷任)한 바 있는 허조(許稠)(1396~1439)가 회색답호(灰色襜護)를 입었다. 하며 세종(世宗)26年(1444) 3月 26日 사은사(謝恩使) 유수강(柳守剛)이 명(明)나라로부터 가져온 곤룡포(袞龍袍)의 이의(裏衣)로 답호(襜護)가 보이고,⁶⁸⁾ 유물(遺物)로는 인조(仁祖)5年(1627) 정묘호란(丁卯胡亂)때 전사(戰死)한 죽산(竹山) 박신용(朴信龍)(1575~1627)장군(將軍)의 전복(戰服)이 전존(傳存)되는바 이를 조사(調查)한 보고서(報告書)에 의(依)하면 길감은

67) 前掲註65 戰服條參照

68) 「世宗實錄」卷103 同王26年(甲子)3月 26日條

자색(紫色)이요 안감은 백색(白色)인데 특이(特異)하게도 깃과 동정이 달렸다.⁶⁹⁾ 이 답호(襜護)는 위로는 왕(王)의 이의(裏衣)로 착용(着用)됨은 물론(勿論) 문무관(文武官)이 통용(通用)된 의복(衣服)으로서 군복(軍服)에 착용(着用)하면 전복(戰服)이요 그의 사람이 입으면 답호(襜護)는 불리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맨드리에 있어서도 계절(季節)에 따라 착용(着用)케 됨으로 겹 전복(戰服)과 홑전복(戰服)으로 구분(區分)되며 따라서 색상(色相)도 전복(戰服)에 있어서는 각위(各衛)에 해당되는 적(赤), 청(靑), 백(白), 흑(黑), 황(黃) 즉 전위(前衛), 좌위(左衛), 우위(右衛), 후위(後衛), 중위(中衛)로 구분(區分)하여 착용(着用)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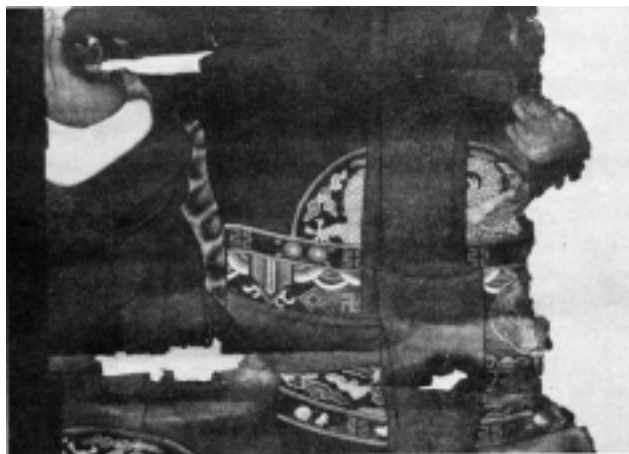


사진 11. 보(補) 및 광대부위(廣帶部位)

사진 11. 보(補) 및 광대부위(廣帶部位)

어진(御眞)의 전복(戰服)겉감은 흑색(黑色)이고 안감은 빨강색으로 역시 군복(軍服)과 같이 운룡단문(雲龍團文)이 등성등성 시문(施文)되었다. 착장상태(着裝狀態)는 전복(戰服)위에 덧입고 그 길이는 군복(軍服)의 길이와 같으나 무릎 아래로 왼쪽 앞자락을 약간 밖으로 제쳐 안자락이 보이게 하였다. 또한 부분적(部分的)으로 요소(要所)마다 운염법(暈染法)으로 묘사(描寫)하여 옷매무새가 매우 유연(柔軟)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군복(軍服)과 전복(戰服)에 부수(附隨)되는 보(補)와 광대(廣帶) 그리고 전대(戰帶)에 대(對)해 다음에 살펴본다.

(ㄱ) 보(補)

보(補)는 임금의 상복(常服)인 곤룡포(袞龍袍)나 왕비(王妃)의 원삼(圓衫) 가슴과 등 그리고 양어깨에 동일(同一)한 품질(品質)로 원형(圓形)바탕안에 용(龍)의 문양(紋樣)을 자수(刺繡)하여 첩부(貼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명(明)나라에서 연원(淵源)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세종(世宗)26年(1444) 3月 26日부터 왕(王)의 상복(常服)에 가식(加飾)하게 되었던 것이다.⁷⁰⁾ 이후 이 제도(制度)는 지속(持續)된 것이며, 또한 문무관(文武官)은 그로부터 10년후(年後)인 단종(端宗)2年(1454) 12月 10日 직급(職級)에 따라 정삼품(正三品) 당상관이상(堂上官以上)만이 제정착용(制定着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⁷¹⁾ 이는 그후 영조조(英祖朝)때 그 일부(一部)가 개정(改正)되었고⁷²⁾, 따라서 한말(韓末) 즉(卽) 고종(高宗)32年(1895)4月 8日 칙령

69) 石宙善 「重要民俗資料報告書」(文化財管理局)1979 竹山 朴信龍 將軍衣襟 參照

70) 前掲註68 參照

71) 「端宗實錄」卷 12 同王2年(甲戌) 12月 10日(丙戌)條 文武官胸背制度는 「大君:麒麟, 王子君:白澤, 都統使:獅子 文一品:孔雀, 文二品:雲應, 文三品:白口鳥, 武一, 二品虎豹, 武三品 熊豹 大司憲獬豸」로 定함

(勅令) 第78號로서 육군복장령(陸軍服裝令)이⁷³⁾ 이어, 광무(光武)4年(1900)4月 17日에는 칙령(勅令) 第14號로서 문관복장령(文官服裝令)이 각각(各各) 반포(頒布)됨에 따라 재래식(在來式) 관복(官服)은 서구식(西歐式)으로 개혁(改革)이 단행(斷行)되었고, 이제까지의 옛 제도(制度)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⁷⁴⁾ 더욱이 보(補)나 흉배(胸背)는 왕(王)의 상복(常服)인 곤룡포(袞龍袍)나 문무관(文武官)의 상복(常服)에 만이 첩부(貼付)하게 된 것이나⁷⁵⁾ 제왕(帝王)에 한해서 만든 군복에 보(補)를 가식(加飾)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現在) 창덕궁유물중(昌德宮遺物中) 「무술(戊戌):1898)군복흉배판」과 「무술신조군 복흉배건화판」의 명문(銘文)이 있는 수본(繡本)이 유존(遺存)되는 바로서 좌우(左右)어깨와 등에 사용(使用)되는 것은 원형(圓形)이고(그림8참조), 가슴 정중(正中)에 첩부(貼附)되는 것은 원형(圓形)이지만 그 정중(正中)을 절단(切斷)한 상태(狀態)(그림9참조)로 이는 군복(軍服)이 직령(直領)임과 동시(同時)에 전복역시(戰服亦是) 가슴 정중(正中)에서 함임(合衽)하고 특(特)히 보(補)의 경우는 이 전복(戰服)에 첩부(貼附)하여야 하는 까닭에 취(取)해진 조치(措置)일 것이다. 한편 어진(御眞)에 도사(圖寫)된 보(補)에 따르면 바탕색은 흑자색(黑紫色)이며 주위(周圍)는 황색쌍조대선(黃色雙條帶線)을 둘렀고, 중앙(中央)에는 반룡(蟠龍)이 머리 좌우(左右)로 불꽃무늬가 뻗친 상태에서 눈은 정면(正面)을 응시(凝視)하고 앞발과 뒷발은 다섯발가락이 균형(均衡)진 동작(動作)으로 힘차게 딛고 있으며, 그 주위공간(周圍空間)마다에는 오색(五色)도 영룡(玲瓏)한 서운(瑞雲)이 감돌고 있는 상태(狀態)이다. 특히 가슴에 도사(圖寫)된 용(龍)은 좌우(左右)에 각각(各各) 배치(配置)된 승룡(昇龍)으로 꼬리가 휘영청 힘차게 구부린 모양은 더욱 율동감(律動感)을 자아 내게 한다.



사진 12 廣帶繡本(昌德宮所藏)

사진 12. 광대수본(廣帶繡本)(창덕궁소장(昌德宮所藏))

72) 「國譯大典會通」卷三 禮典 儀章條 「文官堂上官 以上 雲鶴 堂下官 白閑鳥 武官堂上官 以上虎豹 堂下官 熊羆 格外는 從前과 같음

73) 拙著 「韓國의 火砲」(單事博物館刊)1977 陸軍服裝製式에 對하여 參照

74) 李美那 「朝鮮時代後期文官服變遷에 對한 考察」 「文化財」第18號(文化財管理局刊)1985

75) 拙稿 「皇族用補에 對한 小考」(古文化)12輯(韓國大學博物館協會刊)1974.



사진 13. 옥체(玉體)의 하위(下位)와 족좌부위(足座部位)

사진 13. 옥체(玉體)의 하위(下位)와 족좌부위(足座部位)

(ㄴ) 광 대(廣帶)

광대(廣帶)는 군복(軍服)과 전복(戰服)을 갖추어 입고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를 말한다. 전존유물(傳存遺物)로는 자수(刺繡)로 된 것이 운현궁(雲峴宮)에 일점(一點), 수본(繡本)으로는 장지본(壯紙本)이 창덕궁(昌德宮)에, 또한 장지(壯紙)에 단청(丹青)한 것이 덕성여자대학(德成女子大學)에 각각(各各) 소장(所藏)되어 있다. 그리고 그외(外) 무관용광대(武官用廣帶) 즉(卽) 표면(表面)에 하등(何等)의 장식(裝飾)이 없는 것이 각대학박물관(各大學博物館)에 소장(所藏)되어있음을 산견(散見)할 수 있다. 현재(現在) 창덕궁(昌德宮)에 소장(所藏)된 광대수본(廣帶繡本)에 의(依)하면 그 길이는 90cm이고 너비는 13.3cm로서 상하(上下)에는 2cm사이하여 쌍조간도대선(雙條間道帶線)이 돌리고 그 내부(內部)에는 천도(天桃)를 비롯한 □문(□文), 하화(荷花), 석류문(石榴文) 등(等)이 차례로 시문(施文)되고 상하내부(上下內部) 아래로는 해수강아문(海水薑牙文)과 위로는 서운(瑞雲)이 안배(安配)되었으며 정중(正中)에는 비룡(飛龍)이 자세(姿勢)도 늙늙하게 좌우(左右)에서 마주 트림을 하며 바라보는 형상인데 그 아래로는 만자(萬字)와 여보(女寶)등이 고루 배치(配置)된 상태(狀態)이다.

어진(御眞)의 광대색상(廣帶色相)은 남색(藍色)이며 너비는 약 14.8cm에 이르고 상하(上下)에는 쌍조간도대선(雙條間道帶線)이 시조(施條)되었다. 그 내부(內部)에는 □문(□文)을 위시(爲始)하여 천도(天桃), 하화(荷花)가 원색(原色)으로 싱그럽게 묘사(描寫)되고 내부정중(內部正中)에는 전대(戰帶)가 도사(圖寫)되었고 그 위로는 서운(瑞雲)이, 아래로는 해수강아문(海水薑牙文)과 만자(萬字), 여보문(女寶文) 그리고 오른쪽 겨드랑쪽으로는 광대(廣帶)를 여미고 대구(帶鉤)로 장식(裝飾)한 상태(狀態)이다.

(ㄷ) 전 대(戰帶)

전대(戰帶)는 광대(廣帶)위에 덧매는 띠로서 장교이상(將校以上)은 남색(藍色)의 명주(明紬)

로 하고 군졸(軍卒)은 무명으로 한다. 이는 술기를 비슷하게 마르고 너비는 약(約)10cm 길이는 약(約) 3m 정도(程度)로 하여금 끝은 트게 하되 삼각형(三角形)이 되게 하여야 한다. 어진(御眞)의 전대(戰帶)는 당초문(唐草文)이 시문(施文)된 약간 넓은 남색으로 허리를 둘러 앞 가슴 정중(正中) 광대(廣帶)위에서 고를 드리우고 또한 광대정중(廣帶正中) 중앙(中央)에서 묶어 앞으로 전대(戰帶)자락을 드리웠는데 이는 무릎을 지나 군복(軍服)아랫단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한편 이 전대(戰帶)에 시문(施文)된 당초문(唐草文)은 다른 부분(部分)도 그리 하듯이 실제(實際)의 옷감이 접힌 것이나 가리운 것 같이 그 모양을 그대로 살펴 묘사(描寫)하였다.

(ㄷ) 등채(등편(藤鞭))

등채는 장교(將校)들이 지휘용(指揮用)으로 항상휴대(恒常攜帶)하는 현금(現今)의 지휘봉(指揮棒)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는 등(藤)나무로 만든다고는 하나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에 의하면 죽제(竹製)가 대부분(大部分)이다. 그 맨드리를 살펴보면 손잡이에는 색록피(色鹿皮)를 대는 것이나 천아용(天鵝絨)으로 많이 쓰며 소속위(所屬衛)에 따라 장방형(長方形)의 방위색견(防衛色絹)을 드리운다.⁷⁶⁾ 어진(御眞)에 따르면 오른손으로 등채를 안으로 감아 쥘 상태(狀態)인데 그 길이는 81cm이며, 색감은 짙은 붉은 색이다. 금니(金泥)로 위에서 「수복강녕(壽福康寧)」의 문자(文字)를 넣어 더욱 화려(華麗)하게 보이며 아래 끝에는 약(約) 2cm로 백색칠(白色漆)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아래에서 약(約) 15cm위로 떨어져 삼조(三條)묶음으로 연(連)해 위로 다섯묶음을 결은 형태로 표시(表示)하고, 손잡이 밑으로는 엷은 녹색당초문(綠色唐草文)비단으로 등채 중앙(中央)을 질끈동여 아래로 드리운 모양이다.

(ㄹ) 화 자(靴子)

화자(靴子)는 직위(職位)와 복장(服裝)에 따라 구별(區別)이 되는 것으로⁷⁷⁾ 군복(軍服)에는 목화(木靴) 또는 수화자(水靴子)를 착용(着用)하는 것이다. 어진(御眞)에 도사(圖寫)된 화자(靴子)는 흑색목화(黑色木靴)로서 족좌(足坐)위에 팔자형(八字形)으로 가볍게 덮고 있는 자세(姿勢)로서 창은 백색(白色)을 대어 점차(漸次) 화침(靴尖)에 이르러서는 당코모양으로 마무리 하였다.

(ㄴ) 용문기(龍文倚)

이제까지 전존(傳存)되는 어진(御眞)에 의(依)하면 이태조(李太朝)의 어진(御眞)은 전신상(全身像)으로 어담(御榻)에 정좌(正坐)한 자세(姿勢)이고 익종대왕(翼宗大王)과 철종대왕(哲宗大王)의 어진(御眞)은 용문기(龍文倚)인데 익종대왕(翼宗大王)은 정면(正面)이고 철종대왕(哲宗大王)은 우향(右向)한 자세(姿勢)이다. 윗 부분(部分)은 용체(龍體)가 가리웠고 다만 하부(下部) 족좌(足坐)와 승창 부분(部分)만이 노출(露出)되었는데 족좌(足坐)에는 녹색(綠色)을 승창에는 화문승석문(花紋繩席文)으로 처리(處理)하고 그 변주위(邊周圍)에는 칸막이를 하고 운문(雲文)을 묘사(描寫)하였다.

76) 藤鞭은 遺物을 통해 그 製法을 觀察할 수 있고 또한 梨大博物館所藏의 純祖 動駕圖에서 各 所屬 指揮官이 携帶한 藤鞭을 詳考해 그 衛色을 判別케도 한다.

77) 「大典會通」卷三, 禮典儀章 靴鞋條 一品至 三品朝服 公服, 祭服은 黑皮鞋, 常服은 狹金靴, 四品至九品朝服公服은 黑皮鞋, 鄉史公服은 黑皮鞋, 常服은 皮鞋이다.



사진 14 作品을 說明하는 崔博士

사진 14. 작품(作品)을 설명(說明)하는 최박사(崔博士)

(八) 용문석(龍紋席)

예로부터 어진(御眞)을 도사(圖寫)할 때면 교기(交倚)밑에 까는 자리 문제(問題)로 군신간(君臣間)에 의견(意見)이 오고간 기록(記錄)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中國)에서는 완석(莞席)이 없어 전(氈)을 짜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속(風俗)이 없어 완석(莞席) 즉 자리를 쓰는 까닭에 채담(彩毯)으로 그리는 것이 좋겠으나 상시(常時) 쓰지 않는고로 화문석(花紋席)으로 그리는 것이 후세(後世)에 보더라도 성상(聖上)의 소검(昭儉)의 덕(德)을 알게 될 것이라 하여 화문석(花紋席)으로 결정(決定)하기로 한다.⁷⁸⁾ 어진(御眞)의 자리는 황색승문석(黃色繩文席)으로 좌우(左右)에는 청룡(靑龍)이 붉은 서기(瑞氣)를 뿜으며 네발을 뻗쳐 힘차게 내어던고, 더욱 용(龍)이 내어 디딘 다리마다에는 다섯발가락(오조(五爪))이 힘차게 내어 던고 고리는 휘영청 슬구친 모양(模樣)으로 매우 위엄(威嚴)을 과시(誇示)한 느낌마저 자아내게 한다.

마. 봉심(奉審)과 고증(考證)

봉심(奉審)이란 초본(草本)과 정본설채(正本設彩), 즉 상초과정(上納過程)을 통(通)해 평가(評價) 하는 절차(節次)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각(各) 과정(過程)마다 미진(未盡)한 곳을 지적(指摘)하여 올바로 도사(圖寫)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봉심(奉審)에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을 비롯 원시임대신(原時任大臣)과 왕자(王子) 종친(宗親) 그리고 왕(王)이 친림(親臨)하여 회심(會審)에 참가(參加)하여 그에 대(對)한 의견(意見)을 군신간(君臣間)에 교환(交換)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욱이 봉심(奉審)때 연로(年老)한 신하(臣下)들은 눈이 어두워 도사내용(圖寫內容)이 잘 비교(比較)가 되지 않아 안경(眼鏡)쓰기를 품신(稟申)하여 왕(王)의 윤허(允許)를 받고 안경(眼鏡)을 쓴후 봉심(奉審)에 임(臨)하기도 하는 것이다. 철종어진(哲宗御眞)을 봉심(奉審)할 때도 향사포본(降紗袍本)과 군복본(軍服本)을 비교봉심(比較奉審)하면서 특히 이본중(二本中)에는 향사포본(降紗袍本)이 매우 좋다고 하며 따라서 “천자(天姿)를 엄연(嚴然)히 칠분이상(七分以上)을 닮아서 전신(傳神)을 얻었다”라고 기뻐 품신(稟申)하기도 하는 것을 기록(記錄)을 통(通)해 볼 수 있다. 한편 금반복원모사과정(今般復元模寫過程)에서는 원어진군복본(原御眞軍服本)을 그대로 복원

78) 「承政院日記」 第477 肅宗39年癸巳 4月 13日(庚申)條

(復元)하는 과정(過程)이었으므로 별애로점(別隘路點)은 없었으나 다만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어진좌측부위(御眞左側部位)가 소실(燒失)되어 있는 까닭에 다음 사항(事項)을 중요(重要) 내용(內容)으로 복원모사(復元模寫)케 하였으니

첫째, 규격(規格)은 원화(原畫)대로 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한다.

둘째, 자세(姿勢)는 잔존부위(殘存部位)인 좌측균형(左側均衡)에 부합(附合)되게 한다.

셋째, 화문석(花紋席)의 용문양(龍文樣)은 좌측용문양(左側龍文樣) 그대로 표방(標榜)하기로 한다.

이상(以上)은 작가(作家)와 고증위원(考證委員)사이의 의견일치(意見一致)를 보아 수차(數次)에 궁(巨)한 봉심고증(奉審考證)을 거쳐 완성(完成)하였다.

맺 는 말

이제까지 철종대왕(哲宗大王)의 어진복원모사내용(御眞復元模寫內容)을 주제(主題)로 살피면서 겸(兼)하여 우리나라 초상화(肖像畫)의 발전과정(發展過程)을 알아보고 따라서 조선왕조(朝鮮王朝)를 통(通)한 역대(歷代) 어진(御眞)과 영전(影殿)에 대(對)해 그 실태(實態)를 편모(片貌)나마 간추려 보았다. 그리고 어진(御眞)이 군복본(軍服本)이기 때문에 또한 군복(軍服)의 변천(變遷)도 아울러 그 줄거리가 되는 사항(事項)을 발취(拔取)해 보기도 하였지만 조사(調査)의 미진(未盡)으로 더욱 보강정리(補強整理)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는 터이다. 따라서 어진부분(御眞部分) 설명(說明)에 있어서는 신유(辛酉)(1861) 군복본(軍服本)이 기본(基本)이 되었지만 이번 복원모사(復元模寫)된 부분(部分)도 겸(兼)하여 보완설명(補完說明)하였고 특히 신유본(辛酉本)을 도사(圖寫)할 때에는 향사포본(降紗袍本)과 군복본(軍服本) 이본(二本)을 도사(圖寫)하느라 희원(希園) 이한철(李漢喆) 등(等) 9명(名)이 그 임무(任務)를 감당당(堪當)하였지만 본복원모사과정(本復元模寫過程)에서는 최박사(崔博士) 판독(判讀)으로, 또한 거기에 소용(所用)되는 막대(莫大)한 경비(經費)도 개의(介意)치 않고 오로지 어진(御眞)이 지닌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와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를 높이 통감(痛感)하고 굳은 집념(執念)과 투철(透徹)한 사명감(使命感)으로 옛 선인(先人)들이 제정(制定)한 제도(制度)에 부응(副應)하여 성공적(成功的)으로 완성(完成)한데 대(對)하여 다시 한번 심사(深謝)하는 바이다. 또한 그대로 간과(看過)할 수 없는 사실(事實)은 그는 이번 작품제작기간(作品製作期間)동안 낮에는 국민보건향상업무(國民保健向上業務)에 이바지 하고 오직 새벽 3시(時)부터 아침 8시(時)까지에만 본복원모사작업(本復元模寫作業)을 실시(實施)하였는데 이는 처음 2월 중순(中旬)에 착수(着手)하여 5월 중순(月中旬)까지 만(滿)3개월간(個月間)을 계속 실시(繼續實施)하였으니 그 집념(執念)과 성의(誠意)에 감동(感動)하는 바이며 더욱 이렇게 완성(完成)된 어진(御眞)을 6월 5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로 이봉(移奉)하는 오전(午前) 차로 정중히 봉송(奉送)하고 최박사(崔博士)는 화실(畫室)에 올라가 부부(夫婦)가 섭섭함을 가누지 못해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니 그 얼마나 열(熱)과 성(誠)을 다한 작품(作品)이었으며 그 정감(情感)을 어찌 줄문(拙文)으로 표현(表現)할까보나, 이제 이렇게 숨은 독지가(篤志家)에 의(依)해 이루어진 조선왕조(朝鮮王朝) 第25대(代) 철종대왕(哲宗大王)의 군복본어진(軍服本御眞)은 왕실문화재(王室文化財)로서 또는 왕실복식문화연구사료(王室服飾文化研究史料)로서 영구(永久)히 보존(保存)될 것이니 이러한 전통문화사업(傳統文化事業)이 앞으로도 계속(繼續)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懇切)하다.